

## 6/3(금) 시편 11-17편 터가 무너져 내릴 때

“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(11:3)”

인생의 모든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앞에서  
시인들은 <도망할 것인가, 믿을 것인가? > 갈등합니다.  
태풍이 지나고 난 자리에 폐허와 울부짖음만이 남아있듯  
시인들은 길을 잊고 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(12-14,17편).  
<그럼에도 충실한 자로 남아야 합니까? > 고뇌합니다.

악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(14:1).  
그들은 무방비인 사람을 목표물로 정하고 공격합니다(11:2).  
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,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며 빠져나갑니다(12:2).  
권한 가진 이에게는 아첨하고 힘없는 자들은 억압합니다(12:2-3,5, 14:4).  
자신의 비열한 성공을 영적으로 둔갑시켜 간증합니다(12:3-4).

“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? (13:1)”

시인의 탄식에는 <기도의 가능성>이 열려있습니다.  
그는 <하나님, 나, 이웃>에 대해 각각 묵상하기 시작합니다.  
<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> <악인은 어떤 자들인가>  
<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> 곰곰이 말씀에 잠깁니다.

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길을 정했습니다(15편).  
자신의 터를 다시금 무너질 <모래> 위에 세우지 않고  
<반석>이신 하나님 위에 세우기로 결정합니다(16:8-9,11, 마7:24-25).  
신실하신 하나님께 피하고, 머물기로 결단합니다(14:6, 16:1-2, 17:7-8, 15).

<터가 무너져 내릴 때>, 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?

- 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?
- ❷ 악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?
- ❸ 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까?

### 시편1권 (1-41편)

편	유형	편	유형
1	토라(지혜)시편	22	개인 탄식시
2	왕조시편	23	신뢰의 시편
3	개인 탄식시	24	찬양시
4	개인 탄식시(신뢰)	25	개인 탄식시
5	개인 탄식시	26	개인 탄식시
6	개인 탄식시(참회)	27	신뢰의 시편/개인 탄식시
7	개인 탄식시	28	개인 탄식시
8	찬양시	29	찬양시
9	개인 탄식시	30	개인 감사시
10	개인 탄식시	31	개인 탄식시
11	신뢰의 노래	32	개인 감사시(참회)
12	공동체 탄식시	33	찬양시
13	개인 탄식시	34	개인 감사시
14	개인 탄식시(=53편)	35	개인 탄식시
15	입장 기도문	36	지혜시편(탄식시/찬양)
16	신뢰의 노래	37	지혜시편
17	개인 탄식시	38	개인 탄식(참회)
18	개인 감사(왕조, 삼하22)	39	개인 탄식시
19	찬양시/ 토라(지혜)	40	개인 감사 노래/개인 탄식시
20	왕조시편	41	개인 탄식시
21	왕조시편		